

Daily Auto Check

2020. 8.20(Thu)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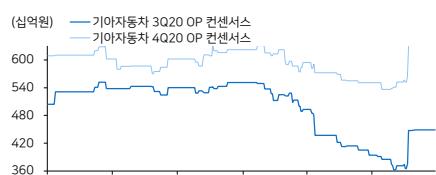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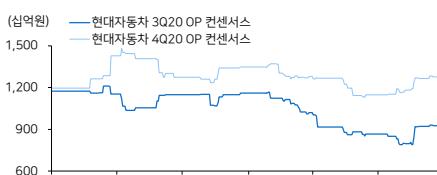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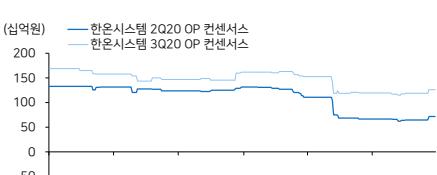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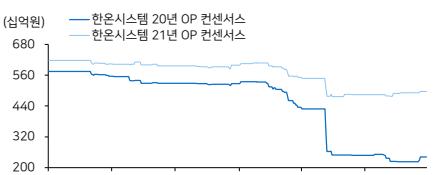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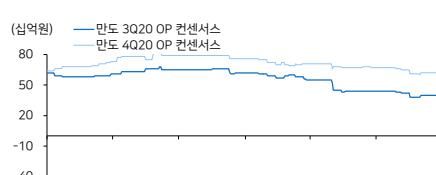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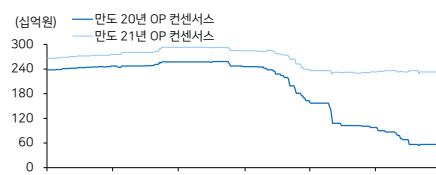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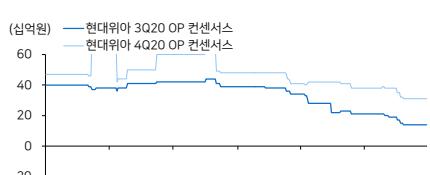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세계 첫 로보택시 상용화 노린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첫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새로운 사업목표로 세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합작법인인 모셔널에 그룹 핵심인력을 대거 파견하기로 함.
<https://bit.ly/3gaclg5>

정승일 차관 "수소차 매출 2년내 5조로 확대" (서울경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9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매출을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와 고용창출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https://bit.ly/3gdU1m8>

'1조원대 통상임금' 기아차 직원들 소송, 9년만에 결론 (뉴시스)

기아차 근로자들이 상당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판단을 내렸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단.
<https://bit.ly/3aGmYGI>

자동차업계, 코로나 재확산에 '비대면 판매' 강화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비대면 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판매 회복을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
<https://bit.ly/3getq80>

독일에서 포착된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 (조선닷컴)

현대자동차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내년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인 신형 전기차 'eG80'이 독일에서 시험 주행을 하다 포착됨. eG80은 올해 3월 국내 출시한 준대형 세단 G80의 전기화 버전.
<https://bit.ly/2CI0R1>

현대차 노사, 2020년 임단협 본교섭 시작... "추석 전 타결 목표" (뉴데일리경제)

현대차 노사는 2020년 임단협 협상을 본격 시작. 현대차 노사는 19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2020년 임단협 협상을 위한 첫 번째 본교섭을 가짐.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충격 등을 고려해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삼음.
<https://bit.ly/328Ui4r>

'개별 브랜드' 뛰우는 현대차... 제네시스 '완전 독립'? (시사저널)

현대차가 제네시스에 이어 아반떼도 별도 브랜드로 출시하면서 창후 행보에 관심이 쏠림. 업계는 특히 현대차가 별도 브랜드 효과를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완전한 분리, 즉 범인 분리단계까지 나갈지에 특히 주목하는 모습.
<https://bit.ly/2EgXy63>

"전기차 분야해야 산다" GM 압박하는 월가 (조선비즈)

GM이 월스트리트의 '분사 압력'에 직면, 전세계 자동차업체의 판도 변화에 따라 GM이 전기차 부문에 약 24조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 구조를 키우는 상황에서, 관련 부문을 분리해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
<https://bit.ly/3glehC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간접·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